

광주·전남 발전 이끈다

기술로 승부하는 기업 전파

광주·전남 中企기술혁신협회장 김식(46)
연 매출 1천억원의 도장·사출업체 G금강(주) 대표 이사. 전동휠체어·복토작과기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로 승부하는 경영을 전파하고 있다.



양파 '감모율' 줄여 농가소득 향상

무안 매봉 농업회사 대표 박희준(52)
농산물의 출하과정을 매뉴얼화해 소득증대 효과를 거뒀다. 양파저장 중 줄어드는 무게비율인 '감모율'(減耗率)을 4~6%로 줄였다.



중학교 교과서에 작품 실려

미디어 아티스트 손봉재(44)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움직이는 조각 등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성화 활동. 올해 출간되는 중학 미술교과서 '회화의 변화' 단원에 설치작품 '경계'가 실렸다.



고마나루 연극제 대상·연출상

푸른연극마을 대표 오성완(47)
광주·보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대표. 전국 고마나루 연극제 대상·연출상 등 3관왕, 광주연극제 대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금형산업 선도 '기능 한국인' 선정

디케이산업(주) 대표 김보곤(51)
금형·프레스 가공으로 연 매출 780억원, 수출실적 4천만달러를 일군 기업인. 판타입 응축기 개발 등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녹차 개발 농가 새 소득원 창출

보성 보향다원 대표 최영기(53)
지난 해 세계 최초로 녹차나무에 '금(金) 폴로이드' 용액을 투입해 차잎에 금 미네랄이 함유된 '금녹차' 개발에 성공,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인도에서 2년 공부 농익은 화풍

서양화가 신창운(41)
현대미술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서 2년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치고 더욱 농익은 작품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10번의 우승·5번의 준우승 끌어내

광주일고 야구감독 허세환(50)
올 시즌 기를 비롯해 10번의 우승과 5번의 준우승을 이끌며 서재응·김병현·최희섭 빙리거 3인방을 키워낸 명장. 2006 세계청소년선수권 제패 당시 사령탑.

LED 평판 조명 KS인증 획득

엘아디라이텍 사장 최종섭(50)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전문기업인.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LED평판조명 KS인증을 획득해 6년새 매출을 80배 성장시켰다.



먼바다 참다랑어 양식 도전

거문도 외해 양식조합 남태현(65)
참돔·돌돔류 등을 먼바다양식으로 30억대의 출하액을 달성했다. 10월부터는 거문도 해역에서 참치류 중 최고급 어종인 참다랑어 양식에 도전한다.



광주 국제아트페어 실무 총괄

비엔날레재단 특별기획팀장 조인호(53)
오는 9월 열리는 제1회 광주 국제아트페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미술 기획자.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전시부부장으로 활약했다.



남아공월드컵 16강 이끌 명장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허정무(55)
진도 출신 아시아의 축구명장. 지난 2005년 프로 축구 전남드래건즈팀 감독도 맡았던 그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첫 원정 16강 진출을 꿈꾸고 있다.

전기자동차 선도 벤처사업가

탑알앤디 사장 김규하(51)
세계 최초 수동양용 전기차 동차를 개발하는 등 특히·실용성이 50여개 보유한 기술형 벤처사업가. 기술혁신 100대 중소기업인에 선정됐으며 4인승 승용전기차를 내년 시판할 예정.



지렁이로 저탄소 녹색성장 일궈

광주·전남 녹색연합사무처장 박필순(38)
'한새봄 논두레'를 결성하고 지렁이로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 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단이 주목하는 힘있는 시인

시인 이대흠(42)
장흥 출신으로 서울예전문창과 조선대 문창과 졸업. 시집 '상처가 나를 살린다', '귀가 서럽다' 등을 냈으며 '시힘' 등인으로 활동 중이다.



작년 LPGA 3승 '골프 지존'

프로골퍼 신지애(22)
 지난해 LPGA 투어 3승에 신인왕과 상금왕에 오르며 '골프 지존'의 위상을 굳건히 자킨 영광출신 천재 골퍼. 올해 최소 LPGA 3승이 기대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맞선 토종 기업인

영암마트 대표 김성진(43)
대형 마트 공세를 이겨내고 '토종' 슈퍼체인 20곳 운영. 수익금의 10~20%는 지역사회에 헌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역 복지시설 30여곳을 후원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후진국에 의료봉사

아이안과 원장 서정성 (40)
(사)희망나루 대표를 맡아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정의 복지와 의료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미안마·방글라데시 등 의료후진국에 5년째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동인문학상 받은 한국문학 기대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경숙(39)
광주 출신으로 소설집 '장국영이 죽었다고?'로 유명. 지난해 '위험한 독서'로 '제40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한국문학의 기대주.



제2의 김연아 꿈 무럭무럭

피겨 꿈나무 박소연(13)
나주초 출신 최연소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지난달 제52회 종별선수권 대회에서 자신의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 등 해를 거듭 할수록 발전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중기제품 판로 개척 선도

광주신세계 고객전략팀장 박인철(40)
광주·전남지역 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 신세계 유통망을 통해 지역상품 판로를 확대 해왔다.



장애인 권리·복지증진 앞장

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문상필(43)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을 맡아 활동을 펼쳐 왔으며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기획, 장애인 권리·복지 증진에 앞장지고 있다.



지역 출판 이끌어갈 젊은 피

한국무용가 배강원(31)
지역 출판을 이끌어갈 젊은 무용수. 동아 콩쿠르 은상 수상. 광주 지역에서는 드문 남성 한국무용수로 5·18을 소재로 한 창작 무용 '꽃비' 등에서 뛰어난 표현력을 보였다.



주니어 역도대회 최우수선수

역도 국가대표 전대운(19)
정광고 소속. 지난달 제48회 전국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런던올림픽 한국역도의 주역으로 부상.

학사농장 설립… 친환경농 선구자

한국농수산식품 CEO연합회장 강용(44)
1992년 장성에 학사농장을 설립해 친환경농산물 전문 생산 및 유통업체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 최근 한국 농수산식품 CEO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일획 연작으로 국제화단서 주목

서양화가 강운(47)
2000년 광주비엔날레에 구름 연작을 출품해 주목받은 뒤 최근 일획 연작으로 다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프라하비엔날레, 세비야비엔날레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도 진출.



'굴림' 대표 지역국악발전 견인

우리문화예술진흥원 이사장 김태훈(46)
굴림 대표를 맡으면서 지역 국악 발전에 힘써온 예술인. 문광부 선정 지역사회문화예술 거점 사업 단체로 뽑혀 '하모하모 아트 슬래' 사업을 진행중이다.



여성 아이들 그룹 '카라' 멤버

가수 구하라(19)
여성 아이들 그룹 '카라'의 멤버. 광주 출신으로 전남중학교를 졸업한 후 기획사 연습생으로 활동. 데뷔곡 '루팡·미스터' 등 다수의 노래로 공연의 히트. TV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활동.

2010 광주·전남 국제문화축제

대숲맑은 담양

대나무축제

무한 축식임, 대술 이야기

2010. 5. 1(토)~5. 5(수)

광주·전남 국제문화축제는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되는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대나무축제, 대숲맑은 담양, 무한 축식임, 대술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green bamboo forest background. In the center, the text "2010 광주·전남 국제문화축제" is written in Korean, with "대나무축제" and "대숲맑은 담양" below it. To the right, there's a portrait of a woman and the text "58". The bottom left contains promotional text about the festival's programs and dates.